

【국어정책 연속토론회 자료집】

제2회 토론회

‘부산’은 Busan인가 Pusan인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이대로 좋은가)

일 시 : (제2회) 2011년 7월 7일 목요일 15:00~17:00

장 소 :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

주 관 : 국어학회, 조선일보

주 최 : 국립국어원

제2회 토론회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15:00~15:05	'5	개 회 손범규(SBS 아나운서)
15:05~15:25	'20	
15:25~15:45	'20	'Pusan' 주장 발표 엄익상(한양대 교수)
15:45~15:55	'10	'Busan' 주장 발표 이홍식(숙명여대 교수)
15:55~16:00	'5	'Pusan' 주장에 대한 토론 이호영(서울대 교수)
16:00~16:10	'10	답 변
16:10~16:15	'5	'Busan' 주장에 대한 토론 이성미(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6:15~16:45	'30	답 변
16:45~17:05	'20	패널 자유 토론
17:05~17:10	'5	객석 질의응답
		폐 회

국어정책 연속토론회 전체 주제 (시간과 장소는 동일)

- 제1회(6/23) '후진타오'인가 '호금도'인가(중국 인지명의 외래어 표기를 현지 발음에 따라야 하는가)
- 제2회(7/7) '부산'은 Busan인가 Pusan인가(국어의 로마자 표기 이대로 좋은가)**
- 제3회(7/21) '북엇국'만 되고 '북어국'은 안 되나(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 제4회(8/11)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 제5회(8/25) '누리꾼'인가 '네티즌'인가(외국어의 순화를 강화할 것인가)
- 제6회(9/8) 대학 영어 강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사회자

손범규 아나운서

SBS 아나운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국어학박사

■ 발표자

엄익상 교수

현 한양대 중문과 교수

인디애나대학교 박사, 연세대학교 석사, 학사
후난대학교 겸임교수, 쓰촨안사범대학교 객좌교수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회장, 한국중국어학회 부회장, 한국중어중문학회 부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어문영향평가위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글규범자문위원,
Korean Romanization Forum 위원
숙명여대, 강원대,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역임, 캘리포니아대 방문부교수 역임

<대표저서>

Perspectives on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공저) Taipei: Crane Publishing Co., Ltd., 2010.
『중국어교육론』(공저) 서울: 한국문화사, 2010.
『韓漢語言探索』(主編) 首爾: 學古房, 2010.
『한국한자음 중국식으로 보기』 서울: 한국문화사, 2008.
『중국언어학 한국식으로 하기』 서울: 한국문화사, 2005.
The Lexical Diffusion of Sound Change in Korean and Sino-Korean (공저)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Monograph Series #20. Berkeley: POLA, UCB, 2003.

<한글 로마자 표기법 관련 논문>

"Recovering Cultural Identity and Refreshing Chinese Flavors: Four Language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1948-2010." *Kore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49.

이홍식 교수

현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서울대 대학원 국문과 졸업
문학박사 - 학위 논문: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프로젝트>

새터민에 관한 프로젝트
외래어, 외국어 사용 실태에 관한 프로젝트 등.

<저서>

방송 글쓰기(공저), 보도 가치를 높이는 TV 뉴스 문장 쓰기(공저) 외 다수

<논문>

새터민의 언어에 대한 연구,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한영사전 이용 실태 연구, 한영 사전의 사전학적 고찰 외 다수.

■ 토론자

이호영 교수

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서울대 언어학과 졸업(학사 1985, 석사 1987)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음성언어학과 졸업(박사 1990)

부경대학교 국문과 교수.
KBS 한국어연구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표 논저>

국어음성학(1996), 바하사 짜아짜아1(2009) 외 다수

이성미 교수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서울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繪畫科)를 졸업하고 미국 Univ. of Calif., Berkeley에서 동양미술사 석사학위를, Princeto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및 박물관장을 역임하고 1989년부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로 재직하며 동 한국학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한국미술사학회장,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 등을 역임하였고 미술사 학술지 Archives of Asian Art의 편집위원이다.

<주요 저서>

『가례도감의례와 미술사: 왕실 혼례의 기록』(2008), *Korean Landscape Painting: Continuity and Innovation Through the Ages* (2006), 『조선시대 그림속의 서양화법』(2000/2003/증보개정판 2008), 『한국회화사용어집』(공저)(2003/2007), *Fragrance, Elegance, and Virtue: Korean Women in Traditional Arts and Humanities*, 『우리 옛 여인들의 멋과 지혜』(2002/2007), 『내가 본 세계의 건축』(2000/2004), 『朝鮮時代 御眞關係都監儀軌 研究』(공저) 등

<번역서> 『日本繪畫史』(秋山光和 原著)

그밖에 국문 및 영문으로 한국과 중국미술사 관련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 게재함.

목 차

- 일 정
-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발표 1 : 엄 익 상_한양대 중문과 교수 1
로마자표기법: 국내표준과 국제표준
- 발표 2 : 이 흥 식_숙명여대 국문과 교수 11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 지정토론 1 : 이 호 영_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21
Busan을 Pusan으로 또 개정해야 하나?
- 지정토론 2 : 이 성 미_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27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그대로 두어야한다」에 대한 반대 입장 토론
- 부 록 : 조선일보 6월 20일자 기사 31

발 표 1

로마자표기법: 국내표준과 국제표준

엄 익 상

한양대 중문과 교수

【발표 1】

로마자표기법: 국내표준과 국제 관례

업 익 상
(한양대 중문과)

1. 현행 표기법, 무엇이 문제인가

해방이후 부산의 로마자 표기는 'Pusan'과 'Busan' 사이에서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부산을 과거처럼 'Pusan'으로 표기해야 할지 아니면 요즘처럼 'Busan'으로 표기해야 맞는지는 어떤 표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떤 표기법이든 한 가지 정해서 오래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현행 표기법이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실 현행 표기법은 성씨 표기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다. '이'자는 'i'로 표기하게 되어 있을 뿐이다. 성씨 표기법과 띄어쓰기규정을 유보한 채 2000년에 서둘러 개정된 현행 로마자표기법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이 통용되고 있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과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미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http://www.loc.gov>)에서 그의 이름을 정부안에 따라 'Sin Gyeongsuk'으로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다. 책 제목으로 'Eommareul butakhae'라고 쳐도 소용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매퀸라이샤워'(MR) 표기법에 따라 'Sin, Kyōng-suk'의 'Ōmma rūl put'ak hae'로 목록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가기호 없이 'Sin, Kyong-suk'의 'Omnia rul putak hae'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고은의 시를 한글로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외국의 도서관에서 정부안을 따라 'Go Eun'으로 백 번 검색해 봐야 그의 시집을 찾을 수가 없다. 'Ko Un'으로 표기하기 때문이다. 고은 또한 여러 가지로 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에서는 서로 다른 인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고도 한국 작가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년 동안 현행 로마자 표기법 사용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국내 공공부문에서는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으나, 2010년 한글학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에 거주

하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행 표기법에 대한 종합 평가 지수는 46.89%에 머물고 있다. 100%를 가장 이상적인 지수로 보았을 때 그 절반인 50%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한편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의 현행 표기법의 수용률은 20~22% 정도에 불과하다. 현행 표기법을 사용한지 11년째인데 국내 평가 지수는 약 47%, 해외 보급률 또한 20%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현행 표기법이 국제 표준이 되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 해외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 대중들은 어차피 적힌 표기법을 읽는 주체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로마자 표기법을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주체는 외국의 동아시아 도서관과 한국학 관련 학자이다. 현행 표기법이 국제 표준이 되려면 결국 해외 한국학 학자들과 도서관에서 많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영미권의 모든 도서관과 대부분의 한국 관련 해외 학자들이 아직도 미의회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MR표기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성씨 표기 규정이 없다

현행 로마자표기법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성을 표기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결점인데, 로마자 표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인명과 지명을 제대로 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로마자표기법으로 김, 이, 박, 최는 'Gim', 'I', 'Bak', 'Choe'로 표기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표기하는 사람이 각각 0.6%, 0.0%, 1.8%, 6.5%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 이들 네 성씨를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9.6%인데, 정부안대로 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또 강, 노, 신, 손 씨는 영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Gang', 'No', 'Sin', 'Son'으로 잘 쓰지 않는다. 또 오 씨와 우 씨도 'O'와 'U'로 표기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 국립국어원이 2009년 발표한 성씨 표기 제2차 시안에는 모든 성씨의 표기를 기존 표기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두 가지 예외를 제안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오, 아, 우 씨를 'Yi', 'Oh', 'Ah', 'Wu'로 적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ㄱ으로 시작하는 성씨는 'G' 대신 'K'로 표기하는 것이다. 절대 다수의 김, 고, 구, 강 씨 등이 'Gim', 'Go, Gu', 'Gang'이 아니라 'Kim'(99.3%), 'Ko', 'Ku', 'Kang'으로 쓰는 것을 현실을 인정해 주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씨의 98.5%가 'Lee'로 표기하고 있고, 박씨의 95.9%가 'Park'로 표기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2%도 안 되는 'Yi'(1%)와 'Bak'(1.8%)으로 쓸 것을 규정하면 잘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그래서인지 이 시안은 공청회까지 거쳤으나, 아직 최종안이 발표되지는 않고 있다.

3. 띄어쓰기 규정이 없다

두 번째 문제는 띄어쓰기 규정이 없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긴 이름도 그냥 붙여 쓰는 게 현실이다. 남한산성입구역에는 'Namhansanseong'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긴 단어를 외국인이 쉽게 읽을 수 있겠는가? 또 해외 도서관에서 남한산성을 그렇게 쳐봐야 검색이 안 된다. 'Namhan'과 'Sansong'을 띄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으로 진출한 한류를 소개하는 TV 보도에서 유럽의 중년 남자가 소녀시대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So Nyeo Si Dae'로 쓰여 있었다. 모두 붙여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 음절씩 떼어 쓰는 것도 문제이다. 이 역시 표준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띄어쓰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현행 로마자표기법이 해외 도서관에서 채택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돌이 뚝으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검색하려고 'Eommareulbutakhae'라고 치면 검색이 안 된다. 중간에 한 칸을 띄어 'Eommareul butakhae'라고 쳐도 마찬가지이다. MR의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하다.

4. 표기법 연속성의 단절 우려

셋째, 표기 방법이 바뀌면 연속성이 단절되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MR은 1937년 발표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MR을 사용한 영문 자료가 전 세계에 걸쳐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한국에 관한 전문 서적은 물론 지도나 관광안내서 등도 대개 이 방법으로 인명과 지명을 표기해 오고 있다. 2000년 한국 정부가 새로운 안을 발표한 이래,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노력으로 일부 학술 서적이 현행 표기법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학계에서는 아직도 MR법 사용자가 절대 다수이다. 다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쇄물에서는 일부 정부안을 사용하고 있다.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해외 실태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75:25, 유럽에서는 77:23의 비율로 아직 MR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이렇듯 복수의 로마자표기법이 사용되다 보니 동일 지명과 인명이 두 가지 이상으로 알려지게 되어 극히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의 주요 도시로 'Pusan'과 'Busan'이 동시에 거명되기도 하고,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이 'Busan'에서 열린다고 홍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을 처음 찾는 외국인들은 그들이 입국해야 하는 공항이 'Incheon'인지 'Inchon'인지 헷갈려하고, 'Cheju'를 가려는 데 왜 'Jeju'행 표를 주느냐고 다시 확인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사실 1948년 정부 수립부터 1959년까지와 1984년부터 2000년까지 MR에 기초

한 표기법을 채택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 기간 동안 국내의 명칭 표기법이 같아서 위와 같은 혼란 없이 88올림픽 같은 국가적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59년부터 84년까지 소위 교육부 표기법이라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표기법을 사용해 왔고, 2000년부터 다시 새로운 표기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5. 2000년 개정 이유와 반론

2000년 개정 당시 해외 한국학 학자 및 국내의 여러 언어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정을 강행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MR은 서양인이 한국어의 특성을 왜곡하여 만든 것이고, 부가기호가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개정 주무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 심재기 원장의 조선일보 칼럼(2000.9.15)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MR에서 유기 자음을 나타내는 ' 표시는 타자기 시절에도 문제가 없었다. MR의 또 다른 부가기호인 모음 위 ˘ 표시는 컴퓨터의 발달로 입력이 쉬워졌다. 'Ctrl+F10'만 치면 라틴 확장 문자표에서 'õ'나 'ü'를 쉽게 고를 수 있다. 또 한글이든 위드든 상관없이 'Ctrl+Shift+6'를 누른 다음 'o'나 'u'를 치면 'õ'나 'ü'가 쉽게 생성된다. 훌륭한 대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기호는 분명 번거롭기는 하다. 그러므로 법령이나 학술서 등 아주 정밀하게 기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부가기호를 생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정주'와 '청주', '신촌'과 '신천'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염려한다. 둘 다 'Chongju'와 'Sinchon'으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에도 신사동이 있고, 강북에도 신사동이 있다. 경기도에도 현리가 있고, 강원도에도 있다. 'Bloomington'은 미국 인디애나주에도 있고 바로 인접한 일리노이주에도 있다. 이렇듯 동일한 지명이나 동음이의어는 세계 어느 국가나 언어에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경기도 광주와 전라도 광주로 구분하듯, 강남 'Sinchon'과 강북 'Sinchon'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면 된다.

매퀸은 평양에서 미국인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이 땅에서 자랐다. 그가 로마자 표기법을 고안할 당시 당대 최고의 국어학자였던 최현배, 정인섭, 김선기 등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이 고안한 방법을 하버드대학의 라이샤워교수가 수정하여 McCune-Reishauer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연고로 영국의 저명한 한국학자인 그레이슨(Grayson)교수는 MR법을 CCK법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기도 했다. 한국은 2차대전 이후 건국된 국가 중에 가장 성공한 나라로 성장하였다. 한국인의 손으로 만든 것이 세계 표준이 되는 것은 뿌듯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과 관련된 일이라도 세계의 표준을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거부할 일도 아니다. 국기 태권도가

호구의 표준이 바뀌는 바람에 요즘 국가대표 선수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은 더 많은 나라가 선택한 세계표준을 한국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한국은 이제 서양인의 손에서 만들어진 한국 관련 세계 표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나라로 성장하였다.

이 대목에서 흔히 중국의 경우를 인용하기도 한다. 중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서구에서 100년 가까이 사용해오던 Wade-Giles법을 밀어내고 최근에는 1958년 중국정부가 제정한 한어병음방법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회도서관은 물론 해외 도서관에서 한어병음으로 중국의 인명과 서명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3억이 넘는 인구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률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와 성명의 표기는 개인의 자유라며 일반 국민은 물론 대통령까지 거의 모두 자유롭게 표기해온 국가와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자기 집 영문 주소는 물론 성까지도 식구마다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우리 스스로도 잘 지키지 않고, 수시로 바뀌는 표기법을 외국에서 뭘 믿고 쓰겠는가? 새로 태어나거나 처음 여권을 만드는 사람부터라도 국가에서 제정한 방법으로 로마자 표기를 하도록 강제해야 30여년 세월이 지나면 표기법이 정착될 것이다. 그런 강제 규정이 없이는 규정은 규정으로만 남고 사람들은 여전히 제 마음대로 영문 이름을 표기할 것이다.

6. 재개정 시 비용의 문제

한 국가의 로마자 표기법이 15년을 평균 주기로 자주 바뀌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바꾸게 되면 표지판 등의 교체비용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그 비용을 아끼려고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과 외국의 괴리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고, 갈수록 외국의 자료와 관례를 바꾸는 일은 더 힘들 것이다. 한국의 마지막 왕조가 'Chosŏn'이라고 배운 외국인들에게 이제는 'Joseon'으로 표기해야 맞다는 사실을 일일이 가르쳐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까? 세계인에게 한국 국내에서 사용하는 표기법을 가르치고 보급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나 한 일일까? 한국의 가장 큰 섬을 'Cheju'로 알고 있는 외국인에게 세계7대 경관 후보인 'Jeju'에 투표를 하라고 하면 또 다른 섬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Koryŏ' 청자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Koryŏ' 청자를 전 시하는 박물관은 없고 'Goryeo' 청자만 전시하기에 그냥 발길을 돌린다면 유무형의 국익 손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호주의 한국학자인 Greg Evon 교수는 중국학과 일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달리 한국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때문에 진입 장벽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로마자 표기법을 내국인은 교육할 수 있지만, 수많은 나라의 외국인을 직접 교육할 방법은 사실 없다. 따라서 국내외 표기법의 차이로 오는 혼란을 극

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따라서 외국의 표기를 다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나, 외국인 교육에 드는 비용, 국내의 사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까지 다 계산하면 현행 표기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따른 손실 비용도 개정하는데 드는 비용 이상으로 발생한다.

7. 발음의 정확성 문제

그러면 과연 부산을 'Busan'으로 표기해야 할까 아니면 'Pusan'으로 표기해야 할까? 현행 표기법대로 적으면 'Busan'이 되고, MR로 적으면 'Pusan'이 된다. 이는 단순히 부산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구, 대전, 광주, 경주, 김포, 제주 등 수없이 많은 지명의 문제이다. 현행 표기법은 이들의 어두 무성무기 자음을 'b, d, g, j'로 적으나, MR은 'p, t, k, ch'로 적는다. 전자와 후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유성성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와 한글학회 및 현대경제연구원(2010)의 보고서에 각각 수록된 조태홍과 이석재의 실험음성학적 분석에 따르면 어두 자음의 VOT 값이 'p, t, k'로 적었을 때가 'b, d, g'로 적었을 때보다 한국 현실음에 훨씬 가깝게 발음된다. 이들은 또 모음 '어'와 '으'를 현행법에 따라 'eo'와 'eu'로 표기할 경우,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은 흔히 [에오]와 [에우]로 발음하여 인식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도 공히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음성학적 분석은 자음이나 모음을 불문하고 MR로 적었을 때 한국 음과 더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을 수 있다. 어두 자음의 유사도는 VOT 뿐만 아니라 긴장성도 고려해야 하고, 한국인은 유무성음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무성음으로 표기하면 유기음으로 읽기 쉽다는 점도 자주 지적된다. 또 모음 '어'와 '으'를 MR처럼 'o'와 'u'로 표기할 경우, 'o'와 'u'로 표기해야 하는 '오'와 '우'와 구분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이는 주공급자인 한국인의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부산과 김포를 외국인이 [푸산]과 [킵포]로 발음하고, 금천구를 Gumchon [굼천구]로 발음한다고 해서, 한국인이 못 알아들을 확률은 거의 없다. 오히려 Geumcheon-gu [제움체운구]라고 하면 알아듣기 더 힘들다. 그러므로 로마자 표기법의 주수요자인 영어나 일본어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성 자음을 유성 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하다.

물론 로마자 표기법의 주목적은 현지 문자를 못 읽는 사람의 의사소통을 돕는 것이지, 현지어의 정확한 발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어의 어두 자음을 'b, d, g'로 적든지, 'p, t, k'로 적든지 큰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지발음과의 유사도가 높은 표기법이 그렇지 않은 표기법보다는 효용성이 높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발음의 유사도 또는 예측성은 로마자 표기법의 선택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요건을 구성한다.

8. 국제적 시각으로 국제 관례를 선택하라

한국의 언어 정책은 이제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글 세대에서 우리만 편하자고 북경의 호금도로 불러보아야 한반도 밖에서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세계인은 모두 베이징의 후 진타오 또는 이와 비슷하게 부르기 때문이다. 외래어 표기법도 국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인의 편의만 생각하고 한국에서만 주로 통하는 로마자 표기법을 고집하는 것은 주사용자의 편의를 무시하고 공급자의 편의만 생각하는 것이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세계인이 모두 사용하는 그날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을 기다려야 할 것인지, 더 늦기 전에 국제 관례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현실에 맞게 약간 수정하여 사용함으로써 국제적 혼동과 손실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할지 그 선택은 너무나 자명하다. MR의 부가가치는 부차적인 문제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국내의 로마자 표기법이 같아지면 국가 간 연합 군사 작전, 한글의 세계표준화기구 등록, 국제경찰업무공조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 언어, 문학, 영화, K-Pop 등 한국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은, 이문열, 신경숙, 김연아, 박지성, 추신수, 소녀시대, 동방신기, 제국의 아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할 때, 그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기되어서야 어찌 세계적인 파워 브랜드로 성장하겠는가?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2009. 『성씨 로마자 표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집)』 문화체육관광부.
 심재기. 2000. 「새 로마자 표기법은 최선」 『조선일보』 9월 15일자, 6면.
 엄익상. 2009. 『한글로마자표기법 해외사용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글학회, 현대경제연구원. 201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 한글학회.
 Eom, Ik-sang. 2011. "Korean Language Policies Related with Chinese and Romanization." *Kore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49.
 Evon, Gregory. 2009.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Romanization in Australia and Oceania." In 엄익상(Eom) 2009:75-84.

발 표 2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 홍 식

숙명여대 국문과 교수

| 발표 2 |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 홍 식
(숙명여대 국문과)

본 발표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대로 두자'는 것이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로마자 표기법도 최상의 표기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안된 많은 로마자 표기법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단점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0년에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은 그러한 여러 가지 로마자 표기법의 장단점을 오랫동안 비교한 끝에 결정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상의 로마자 표기법은 아니더라도 더 나은 로마자 표기법이 없다는 점에 공감하여 선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로마자 표기법들을 같은 자리에 놓고 서로 비교하는 작업은 필요하며 표기법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기능을 기준으로 삼아서 적절하게 여러 가지 로마자 표기법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로마자 표기법과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그것은 이미 정해서 널리 보급된 로마자 표기법을 버리고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을 선택할 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 토론회가 현재 시행 중인 로마자 표기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로마자 표기법이 갖는 성격이나 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로마자 표기법을 아예 없애자는 논의가 아니라 다른 표기법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이므로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는 로마자 표기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동일한 차원의 비교는 아니더라도 현행 로마자 표기법과 다른 로마자 표기법을 비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기법을 바꾸는 일은 가법계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먼저 표기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있다. 왜 많은 로마자 표기법이 제안되었고 또 그러한 표기법은 어떠한 문제를 안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되면 로마자 표기법의 개정이라는 작업이 꼭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자 표기법이 갖는 근본적인 성격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지금까

지 로마자 표기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왜 자꾸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지를 이해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로마자 표기법을 통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떤 한계를 갖는지를 인식하게 할 것이다.

로마자 표기법은 왜 필요한가. 대답은 자명하다. 세계 모든 국가가 한국어와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외국어와 로마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문자로 적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 외국어 화자, 로마자를 관련시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를 외국어 화자가 이해하게 로마자로 적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왜 외국어 화자가 한국어를 이해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영어 화자가 왜 한국어를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영어로 영어 화자와 말을 하면 되지 않는가.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영어 화자, 때로는 영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외국어 화자와도 우리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한국어와 관련된 정보는 영어로 번역되어 다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어와 관련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사용할 때 영어에 없는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고유명사이다. 한국어의 고유명사는 영어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대응하는 영어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어도 글을 쓸 때에는 영어에 없는 한국어 고유명사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한국어의 고유명사를 어떻게든 영어에 있는 고유명사나 보통명사로 번역하는 것이다. 예전에 'Hollywood'를 '성림(聖林)'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하여 한국어에 사용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한국어 고유명사를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영어의 보통명사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과 외국인은 아마도 그러한 시도를 정상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어떤 고유명사는 그 고유명사에 대응하는 영어의 보통명사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해결책은 한국어의 고유명사를 외국어의 음운체계에 맞도록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고려해야 하는 외국어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영어로 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효율적일 수 있다. 영어로 한정하게 될 경우에는 영어에 없는 발음인 'ㄱ, ㅋ' 등을 제외하고 한국어의 고유명사를 영어의 발음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영어에는 해당 고유명사가 없다고 해도 로마자 특히 영문자로 적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예 모든 한국어 고유명사를 영어식 고유명사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식 고유명사는 다른 외국에서도 익숙할 것이므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 포함시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물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어에서는 영어나 불어

에서 들어온 단어의 철자가 독일어의 표기 관례에 맞지 않는 경우에 수정해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영어식 표기가 자연스럽게 다른 외국어에 수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식으로 바꾼 고유명사가 다른 외국어에 수용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식의 해결책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의 모든 고유명사를 모두 이런 방식으로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명의 경우에는 창씨개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까지 있다. 이것은 한국어를 영어로 대체하려는 주장과 거의 맞먹는 매우 과격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해결책은 한국어 고유명사를 해당 외국어의 문자로 적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로마자 표기법이 등장한 이유일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문자로 적는 것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인 우리가 적은 로마자에 따라 한국어를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수많은 논의에서는 대부분 문자보다는 발음을 문제 삼았다. 로마자 표기법의 어려움은 한국어를 로마자로 적기는 했지만 해당 외국어의 화자가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다.

물론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해서 시각적인 측면만 이용할 수도 있다. 전자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한글을 로마자로 재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이다. 그것은 한글이 음소문자이지만 실제로 표기할 때는 마치 음절문자처럼 글자를 음절별로 모아서 쓰기 때문이다. '밥'은 'ㅂ, ㅍ, ㅍ'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로마자처럼 'ㅂㅍㅍ'처럼 적지 않고 음절별로 'ㅂㅍ'이라고 적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의 자모를 로마자의 자모로 대응시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외적으로 전자법을 허용한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도 전자법으로 로마자를 적을 때 음가가 없이 음절의 경계를 표시하는 'ㅇ'을 로마자가 아니라 붙임표로 대응시켜 적도록 한 것이 그런 점을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엿'은 'mul-yeos'으로 적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한글 맞춤법이 어법에 맞게 쓰도록 하고 있어서 전자법을 채택할 경우에는 한국어의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도록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전자법의 장점이라면 한글로의 복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지만 한국어에 가깝게 발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약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전자법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전자법은 한글로의 복원 가능성이라는 점에서는 전자법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한적이거나 한글로의 복원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외국어 화자가 발음할 수 없는 한국어의 발음 정보를 로마자 표기가 포함하게 되므로 그러한 정보는 한글로의 복원 가능성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ㄱ, ㅋ, ㆁ'는 외국어 화자가 구별하여 발음할 가능성은 없지만 구별하여 표기함으로써 대응하는 한글로 복원할 수 있게 된다. 전자법이 음성적인 측면에서 큰 정보의 손실을 갖고 있다면 전자법은 발음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한글로의 복원 가능성을 어

느 정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전자법보다는 우위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법의 경우에 로마자로 발음을 표시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로마자가 일단 단일한 문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로마자는 유럽의 많은 국가와 기타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문자 전체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 사용하는 문자가 모두 같은 모양인 것은 아니다. 공통된 문자도 있지만 각국의 언어에 맞추어 변형된 문자도 많다. 우리가 로마자라고 했을 때 이들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자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공통적인 문자와 이질적인 문자를 모두 합한 집합 전체를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그런데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사용된 문자를 보면 영어에 사용되는 로마자와 겹친다. 물론 영어에 사용되는 로마자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다. 'f, v, q, x, z'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영어에 사용되는 로마자만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자 표기법을 영자 또는 영문 표기법으로 이해하게 되지만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영문 표기법은 아니다. 규정의 어디에도 영문 표기법으로 이해할 만한 내용은 없다.

로마자는 많은 언어권에서 사용하므로 해당 로마자가 실현해야 하는 발음은 해당 언어권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로마자 'a'는 영어에서는 우리 귀에 '에, 아, 에이' 등으로 들리는 다양한 음가를 가지며 독일어에서는 대개 우리 귀에 '아'로 들리는 정도의 음가를 가진다. 영어에서는 'v'가 [v]로 발음되지만 독일어에서는 [f]로 발음된다. 특정 로마자가 특정 발음을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자 자체의 본질적인 속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로마자는 범음의 발음 정보를 담을 수가 없다. 실제로 한국어 화자도 많은 로마자 인명을 대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명을 원래 그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사람의 의도대로 읽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낀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발음을 그 배우는 자기 이름의 발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마릴린 밀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로마자가 특정한 발음을 표시한다고 약속하더라도 로마자로 표기된 한국어의 발음을 외국어 화자가 다 인식하거나 발음할 수는 없다. 한국어의 'ㄱ, ㅋ, ㆁ'나 'ㄱ, ㆁ'를 어떻게 적어도 외국어 화자가 성공적으로 발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발음 정보를 로마자로 표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안된 대부분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의 'ㄱ, ㅋ, ㆁ'나 'ㄱ, ㆁ'와 같은 발음을 로마자 표기에 반영해 왔다.

물론 'ㄱ'와 'ㄱ'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표기법도 있다. 예를 들어 1984년의 로마자 표기법은 로마자 'g'에 반달표를 덧붙여서 'g'로 'ㄱ'를 표기하지만 반달표를 쓰지 않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 경우에는 'ㄱ'과 'ㄱ'는 표기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반달표를 쓴다고 해서 외국어 화자의 발음에서 그 둘이 구별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외국어 화자가 이 구별 기호를 이해하고 그 기호에 따라 이 둘을 구별해서 발음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로마자를 사용하는 많은 언어에서 반달표가 그러한 구별 기호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ㄱ, ㅋ, ㆁ’의 구별 역시 실제로 외국어 화자가 구별해서 발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음운론적으로 중요한 발음이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된다. 외국어 화자에 의해 발음될 수 없는데도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전자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외국어 화자에게 시각적으로 구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 화자에게도 구별되어 한글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어 화자는 인식할 수 없지만 구별되어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ㄱ’에 대해서 ‘k’와 ‘g’를 구별해서 표기하는 경우이다. 한국어의 ‘ㄱ’은 어두에서는 무성음인 [k]로 실현되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g]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이를 반영하여 ‘kagu’(가구)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다. 표기법은 대개 언중이 인식할 수 있는 발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한국어 언중이 인식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발음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특이한 처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 화자에게 별개의 소리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해서 한국어 화자에게는 하나의 소리인 것을 별개의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ㄱ’에 대해서 ‘k’와 ‘g’를 배정하면 ‘ㅋ’에 대해서는 다른 글자를 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려면 특수 기호를 쓰거나 ‘kh’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한국어 화자가 들을 때 [k]를 ‘ㄱ’으로 듣지 않고 ‘ㅋ’으로 듣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치 풍선 효과처럼 어떤 표기 문제를 해결하면 표기의 다른 부분에서 다시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 로마자 표기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발음을 로마자 표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표기의 이점에 대해 논의할 때 많은 로마자 표기법의 논의에서 표기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 표기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한다. 더 나아가서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법이라는 주장도 들린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한 [k]와 [g], [p]와 [b]와 같은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외국어 화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이 한쪽을 위한 것, 특히 외국어 화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언어는 두 사람 이상이 주고받아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쪽만을 위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은 로마자 표기법이 문제되는 상황은 언어와 언어가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외국어 화자가 발음하기 쉬워도 그것을 이해하는 한국어 화자가 그 발음을 듣고 다른 발음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외국어 화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영어 화자의 발음 [k]를 듣고 한국어 화자는 ‘ㅋ’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어 화자를 위해 마련한 표기

법이 외국어 화자에게 어려움을 안겨 주게 되는 것이다. 외국어 화자가 의도한 대로 자신의 발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외국어 화자에게 한국어 발음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외국어 화자에게는 한국어가 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래어를 발음할 때 겪는 어려움을 상기한다면 외국어 화자가 한국어 발음을 어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이해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어 화자를 위해 로마자 표기법이 존재하거나 특정한 표기 방식이 외국어 화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는 것이 누구에게 쉬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쉬워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이미 표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발음을 성공적으로 재현하지 못하면 결국 한국어 고유명사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해서 외국어 화자와 한국어 화자 모두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이다. 어느 한쪽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의 고유명사를 번역할 수 없어서 한국어 고유명사의 발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발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언어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이 발음이라서 그러한 기능은 완벽하게 수행되기 어렵다.

한국어에서도 방언 사이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발음이다. 그러므로 언어 간에 음성적인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한국어 고유명사의 모든 발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로마자로 한국어를 표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현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허한 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선택한 로마자 표기법이 범용이라는 점이다. 특정한 언어권 화자를 겨냥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법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고유명사의 발음 정보는 특정 언어권 화자의 표기법에 대한 지식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로마자 표기법에 담은 한국어의 발음 정보는 고정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외국어 화자가 한국어 발음 습관에 맞게 발음하기를 기대하는 한국어 화자의 바람은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로마자 표기법을 이렇게 또는 저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에 담은 한국어 고유명사의 발음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외국어 화자가 발음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일 것이다.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외국어 화자에게 어떤 발음까지 실현되도록 기대하고 또 요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한국어로 대화할 때 외국어 화자의 이름을 우리 발음 습관에 맞추어 발음하는 정도로, 외국어 화자가 한국어 고유명사를 한국어의 발음 습관에 아니냐 그들의 발음 습관에 맞게 발음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로마자에 반영된 한국어의 다른 음운론적 특징은 전자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외국어 화자가 발음할 수 없는 한국어의 발음을 어떻게 적으면 외국어 화자가 발음할 수 있

을까를 궁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어의 고유명사를 영어에 맞추어 발음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로마자 표기법을 찾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보는 것보다 외국어 화자가 로마자를 읽고 한국어를 발음할 때 그 발음이 한국어의 어떤 고유명사일 것인지에 대해 더 잘 추측하는 작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비용이 덜 드는 일이 될 것이다.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바꾸는 것보다 바꾸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어문규범을 자주 개정하게 되면 어문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희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규범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규범의 측면에서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제공하는 문헌에서 주기적으로 고유명사의 표기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면 한국의 어문규범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대외적인 신뢰의 차원에서도 로마자 표기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다른 어떤 로마자 표기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은 본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규범을 정하고 그 규범을 지키며 홍보하고 보급하는 것이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목표를 상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규정을 바꾸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거나 만든 덕분에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 그 결과 언제나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은 저 너머에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버리거나 바꾸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언제나 옳은 것이나 좋은 것이 저 너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지금이 저 너머보다 더 낫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부심이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지정토론 1

Busan을 Pusan으로
또 개정해야 하나?

이 호 영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 'Pusan' 표기 주장에 대한 지정토론

Busan을 Pusan으로 또 개정해야 하나?

이 호 영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엄익상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의 문제점으로 첫째, 성 표기 규정 미비, 둘째, 띄어쓰기 규정 미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로마자표기법에는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성씨 표기 규정을 따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 표기는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규정을 마련하기 어렵겠지만 성별로 가장 널리 쓰이는 표기법을 하나씩, 필요하면 두세 개씩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여권을 만든 사람들의 경우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없으므로 새로 여권을 만드는 사람들은 성씨 표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자식의 성이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생겨 혼란이 생기겠지만 과도기적인 혼란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로마자표기법에는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의 경우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의 표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미 굳어진 고유명사의 로마자 표기는 로마자표기법과 다소 다르더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엄익상 교수님께서 우려하고 지적하신 로마자 표기법은 '조선, 고려, 제주, 부산' 등과 같이 역사성 있는 고유명사의 표기법입니다. '조선'도 'Chosun', 'Chosŏn', 'Joseon' 등의 표기가 공존하고 있어 하나로 통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려'도 'Koryeo', 'Koryŏ', 'Goryeo' 등의 표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로마자표기법의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역사성이 있는 인명이나 지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 통일안은 국립국어원에서 만들어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엄익상 교수님께서 MR로 적을 때 한국 음과 더 가깝다고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과 '통장'을 MR식으로 표기하면 'dongjang'과 'tongjang'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두 단어 모두 '통장'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통'과 '똥'도 모두 '통'으로 발음합니다. 반면에 '동장'을 'dongjang'으로 표기하면 어두의 /ㄷ/이 한국 사람들에게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통장'과 구별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독일 사람들은 [동

양]으로 발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어의 'ㄷ, ㅌ, ㅌ'을 't, t', 't'로 적어 't'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ㄷ'과 '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모음의 경우 한 모음을 두 개의 모음기호로 표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 필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와 '으'를 'ə'와 'ɨ'로 표기하면 이 모음들을 [오]와 [우]로밖에 발음할 수 없게 됩니다. 2000년에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반달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반달점을 사용해도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고 학계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필자도 반달점을 사용해 모음을 표기하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엄익상 교수님께서 MR 방식이 세계의 표준이라고 언급하신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쓰인다고 할 수는 있어도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국제 표준안은 합의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국제 표준안을 만드는 데 우리나라가 빠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 13억이 넘는 인구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률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중국의 한어병음 표기법을 미국에서 채택했지만 우리 스스로도 잘 지키지 않고, 수시로 바뀌는 표기법을 외국에서 뭘 믿고 쓰겠느냐고 지적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1980년대 초반 미국 국방성에서는 한국이 MR식과 다른 로마자표기법을 오랜 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문교부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 군사지도 등을 모두 바꾸려고 예산까지 다 마련해 놓았는데, 우리 정부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겠다고 서둘러 MR식으로 로마자 표기법을 바꿔서 미국 정부의 계획이 무산되었던 쓰린 경험이 있습니다. MR식이 최선의 로마자 표기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일관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MR식 표기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서양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표준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미성숙하고 국수주의적이어서가 아닙니다. MR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MR식에 문제점이 있어 우리가 만든 표기법을 외국 기관에서도 써 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 기관들을 설득해서 현행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꾸는 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이 주기적으로 바뀌어 혼란을 초래하는 데 대해서 필자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에 준하는 어문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표기법을 자주 바뀌는 것은 학문적인, 문화적인 토대가 없는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자 표기법의 개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정한다면 더 이상의 개정은 없어야 할 것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논쟁은 중단하고, 흡족하지 않더라도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고, 이를 국내외에 보급하는 데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마자 표기법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표 1. 한국어 파열음의 VOT

	ㅂ	ㄷ	ㄱ	ㅃ	ㄸ	ㄲ	ㅍ	ㅌ	ㅋ
L & A (1964)	18	25	47	7	11	19	91	94	126
Kim C.W. (1965)	23	38	45	9	15	13	98	92	90
H & W (1970) #1	27	33	62	5.3	12	20.4	129	133	148
H & W (1970) #2	19.6	22.9	42.4	4.8	7.5	27.1	105	107	136
H & W (1970) #3	16.8	21	27.2	4.8	5.7	15	66	73	71
	Lenis			Fortis			Aspirated		
C.J & L (2002)	~70ms			~20ms			~120ms		
Silva (2006)	~53ms			~10ms			~55ms		

표 2. 미국인들의 한국어 자음 인지(Schmidt 2007)

Korean	ㅂ	ㅃ	ㅅ	ㅆ	ㅈ	ㅉ	ㅊ	ㅋ	ㆁ
English	/p/	/p/	/b/	/t/	/t/	/d/	/k/	/k/	/g/
A %	91	96	76	90	98	85	87	94	86
G %	42	55	40	38	63	37	38	47	40
Mean	4.0	4.3	3.9	3.8	4.5	3.9	3.9	4.1	3.9

		b	d	g	p	t	k
L & A (1964)	Mean	1/-101	5/-102	22/-88	58	70	80
	Range	0-5/30- -20	0-25/-155- -40	0-35/-150- -60	20-120	30-105	50-135
Vautour	Mean	12.9	16	24.7	42.4	40.6	64.3
	St. Dev.	3.6	3.2	5.8	12.9	6.3	13.5

그림 1. 영어의 VOT

지정토론 2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그대로
두어야한다」에 대한 반대 입장 토론

李 成 美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Busan』 표기 주장에 대한 지정토론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그대로 두어야한다」에 대한
반대 입장 토론

李成美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미술사)

우선 토론자가 언어학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따라서 나의 입장은 언어학, 또는 음운학적으로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나 M-R 표기법에 관하여 논한 이 자리에 계신 다른 학자들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토론자는 한국미술사를 영어권에 알리는 일을 다년간 해온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홍식 교수가 말한 대로 어느 로마자 표기법도 최상의 표기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토론자도 공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 지명이나 기타 고유명사, 또는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한글 용어를 비교적 나은 방법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우리나라의 고유명사들을 외국인이 가장 우리말에 근접하게 발음할 수 있을까?

로마자 표기법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에게는 로마자 표기법이란 자신들의 이름을 여권이나 기타 영문표기를 요하는 서류에 기재할 때를 제외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자 표기법을 제정할 때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 즉 그들이 우리의 고유명사나 기타 필요한 말들을 되도록 우리말에 근접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지상의 목표이다.

주지하다시피 M-R 표기법은 외국과 한국의 관계분야 학자들이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 낸 작품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말을 어떻게 발음하느냐를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이다. 2000년 현행로마자 표기법 시행 후 미국의 한 학회에 참석했던 토론자는 '고려시대'를 새 표기법에 의하여 'Goryeo'로 쓴 것을 보고 외국인들이 첫 번째 'G'를 유성음으로 느슨하게 발음하고 'ryeo'를 '려'와는 거리가 먼 '리어'로 발음하는 것을 듣고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로마자 표기에서 우리는 서양 언어에서는 확실히 존재하고 우리말에서는 구분하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무성음과 유성음을 확실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한국어를 처음 배우며 '동생'이란 단어에 자신을 위한 발음기호를 'tongsaeng'으로

적어 넣는 것을 보았다. 또 그 학생은 '옥수동'을 'Oksudong'으로 적어 넣었다. 그 학생에게는 첫 번째 음으로 등장하는 'ㄷ'을 't'로 적고 중간에 나오는 'ㄷ'은 'd'로 표기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웠던 것이다.

'거제도'를 현행 표기법으로 하면 'Geojedo'가 된다. 많은 서양인들은 'geography'에서와 같이 'geo'를 보면 당연히 'e'와 'o'를 분리해서 발음한다. 따라서 '지오제도'라고 발음한다. M-R 표기법이라면 'Kōjedo'이며 이것을 'o' 위에 반달표시가 없어도 우리말의 '거제도'에 매우 근접하게 발음한다. 설사 'k'를 강하게 발음한다고 해도 '지오제도'와 같은 엉뚱한 발음은 나오지 않는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들에게 이런 경우 이중으로 적어야 거제도로 물건이 제대로 전달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한다.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행 표기법에서는 그 자체 내의 모순도 있다. '의'와 '우이'가 모두 'ui'로 표기 된다. 설령 명인 즉 '의'라는 한 음에 'eu'라는 세 로마자를 쓰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즘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의궤'라는 단어가 원래는 'euigwe'라고 적어야 맞는데 현행 표기법의 이상한 이론에 의해 'uigwe', 즉 '우이궤'가 되어 버렸다.

위와 같은 예를 들자면 한없이 많다. 그러므로 이제 좀 더 큰 문제를 언급하고 이 토론문을 마무리 짓겠다. 1937년 M-R 표기법이 고안된 이후 70년이 넘게 구미의 한국학 도서관, 박물관, 군대, 기타 공공 기관에서는 이 표기법을 사용해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고 한국학 연구자들도 이 표기법으로 글을 써 왔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한국학 관련 자료들을 현행 표기법으로 바꿔야 한다면 그 비용이나 인력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10년간의 축적된 자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도 미국의 출판사들은 원고를 M-R 표기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필자의 한국 회화(繪畵) 관련 책 한 권의 영문 원고도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의 요청에 의해 M-R 표기법으로 작성해서 보내 놓은 상태이다. 앞으로도 구미 각국에서는 이 표기법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것이 더 합리적인 표기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이 우리말을 우리말에 가장 근접하게 발음할 수 있는 M-R 표기법으로 가야 한다. 실제에서는 반달표의 불편을 없애는 방안을 고안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글이 아니라면 반달표를 생략한 채 쓰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현행 표기법보다는 훨씬 더 우리말에 근접한 발음이 나올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부 록

조선일보 7월 4일자 기사

